

“장학생으로 누린 혜택, 보답방법 찾는 중”

글 유인종 편집부 / 사진 송은지 핀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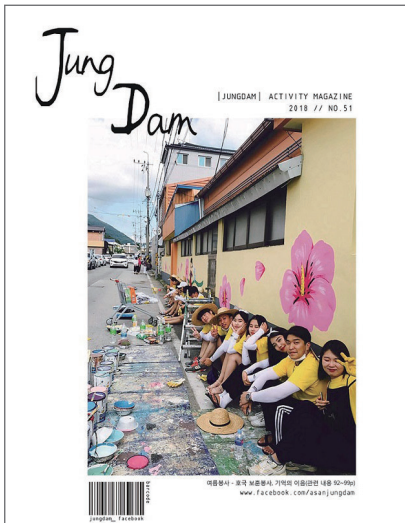
이해숙 대표는 1991년부터 출판업을 시작해 350여 종의 시집과 수필집 · 소설집 · 평론집 · 종교서 등을 출판했다.

이해숙(56) 대표는 숙명여대 국문과 3학년 2학기 때 아산재단의 장학생(아산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인 1983년의 일로, 그녀는 제8기 아산장학생 중 한 명이 됐다. 아산장학생 선정은 그녀에게 몇 가지를 선물했다. 우선 초등학교 교감이던 아버지의 등록금 마련 부담을 덜어드렸다는 뿌듯함이 가장 컸고, 그해 숙명여대에서 단 2명만 선발된 아산장학생에 포함됐다는 자부심이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선물은 사람들과의 교류 범위를 확대시켜 주었다는 점이다. 그녀는 여자 중 · 고등학교(서울 선일중 · 선정고)를 나온 데 이어 여자대학에 입학해서 친구들과의 만남이 한정돼 있었다. 아산장학생에 선정돼 아산장학생회(별칭 정담회, 1979년 9월 1일 조직)에 나갔더니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의 대학생들, 특히 남자 대학생들이 많이 참석했다. 이들과 왕래하면서 작가, 특히 소설가를 꿈꾸던 그녀는 사고 범위가 이전과 달리 넓고 깊게 확장되는 것을 느꼈다.

당시 아산재단은 서울 신문로의 옛 서울고등학교(현 경희궁) 자리에 있었다. 정담회는 매월 한 차례씩 아산재단의 한 공간을 빌려 모임을 가졌다. 그 무렵 열심히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지금 아산장학생 동문회(별칭 정담동문회, 1979년 12월 28일 결성)의 고문을 맡고 있는 정영환 고려대 법학과 교수, 조남두 신구대 유아교육과 교수 등 30여 명이었다. 정담회 활동을 하며 연인이 된 커플들도 적잖게 눈에 띄었다.

“전 학생일 때는 소극적으로 참여했고, 대학 졸업 후에 열심히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아산장학생으로서 많은 혜택을 받았는



이혜숙 대표가 운영하는 출판사에서는 15년째 아산장학생 동문회지인 <정담>을 제작하고 있다.
1985년 숙명여대 졸업식 때 아산장학생 친구들이 참석해 축하해주었다(왼쪽부터).

데 어떤 식으로든 보답해야 한다는 뉘트는 깨달음이 생긴 거죠 (웃음).”

국문과를 나와 출판사를 운영하는 진공을 살려 처음에는 정담동문회의 홍보국장으로 활동했고, 15년 전부터 부회장을 맡고 있다. 아산재단의 주요 행사인 매년 2월의 장학증서 수여식과 3월의 아산의학상 시상식, 11월의 아산상 시상식에는 아무리 바쁜 일이 생겨도 정담동문회 회장단과 함께 참석해 열심히 박수를 치며 축하해준다. 그녀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활동은 매년 정담회가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해 펴내는 소식지 <정담>을 제작하는 일이다. 후배인 아산장학생들의 글과 사진을 전달받아 책자로 만드는 일을 그녀는 벌써 15년째 정성을 담아 진행해오고 있다.

고교생 2명에게 장학금 전달

아산재단은 지난해 설립 40주년을 맞았다. 재단 창립 직후인 1977년부터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장학사업을 실시한 아산재단은 올해인 2018년까지 3만2천2백68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정담동문회는 아산재단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장학금을 받았던 사람들인 만큼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어요. 아산재단 설립 30주년이던 2007년부터 조금씩 적립해온 장학기금으로 올해 2명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준 건 그래서죠. 장학생 동문들이 월 1만 원씩 자동이체해서 기금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 참여하는 동문이 많

지 않아요. 참여자가 많아져서 기금이 늘어나면 학생 수를 더 늘리고 싶습니다.”

성실한 덕분인지 이혜숙 대표는 사업운이 좋은 편이다. 숙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을 수료한 뒤 고려대 앞에서 문학도답게 ‘다다이즘과 쉬르레알리즘’이라는 이름의 카페를 3~4년 운영했는데, 여기서 돈을 많이 벌었다. 1991년에는 세림(世林)이라는 출판사를 인수해 신세림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다른 출판사들과 달리 매출이 많은 편이다. 문학 전문 출판사인 신세림은 지금까지 베스트셀러를 출판한 적은 없다. 그런데도 30년 가까이 출판사를 유지하는 것은 ‘비전문적인’ 인쇄물 덕택이다. 그녀는 10여 년 전부터 블랙박스·내비게이션 등 차량·전자기기 제작업체를 고객으로 확보해 10여 종의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는데 부수적인 작업이 출판사의 주 소득원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그녀가 이들 업체를 10년 이상 단골로 관리하는 노하우는 단 하나, 매뉴얼 수주부터 납품까지 그녀가 직접 발품을 판다는 것이다. 출판사 직원을 시키지 않고 대표인 그녀가 직접 움직이므로 거래처에서는 항상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65세까지는 열심히 출판인으로 활동할 계획이에요. 정담 동문회 활동도 소홀히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아산재단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동문들과 힘을 모아 보답해서 후배 아산장학생들에게도 모범을 보이고 싶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덕분인지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이혜숙 대표는 1985년 결혼한 남편(이시환 시인·61)과의 사이에 1남(지형·사진작가·31)을 두고 있다. 🍷